

開 會 人 事

(全 文)

李 相 禹

(西江大 東亞研究所長)

오늘 “第2次 韓中日 政治思想文化比較세미나”를 시작함에 즈음하여 이會議을 후원하여 주신 韓國國際文化協會 金聖鎭會長이하 여러분과 또한 이會議에 참석하여 주신 徐大肅, 山田辰雄, 李範俊, 全海宗教授님 등 內外學者여러분께 저희 東亞研究所의 33名 研究委員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 學術會議는 “아세아에서의 共產主義 受容 : 韓中日 共產主義運動의 思想, 政治 指導者들”이라는 主題로 진행됩니다. 이 회의는 작년 8月 서울에서 가졌던 회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韓國, 中國, 日本의 세 나라는 오랜 文化傳統을 지닌 나라들로서 지난세기까지는 안정된 政治와 文化를 향유하면서 각각 고유의 삶을 누려오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2백년전부터 불어닥친 西勢東漸의 큰 물결속에서 近代化의 새로운 課題를 안고 自己改善의 길로 들어선 이래 많은 試鍊과 混亂을 겪어 왔습니다. 西洋의 앞선 文明의 利器 앞에서 스스로의 無力感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그전에 접하여 보지 못했던 새로운 價值體系와 文化樣式을 접하면서 많은 精神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西洋文物을 受容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社會發展의 契機도 포착했었고, 또한 반대로 既存體制를 뒤흔드는 混亂도 겪었습니다. 특히 民權思想, 自由主義, 平等主義, 民主主義 그리고 共產主義 등의 理念들의 受容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큰 混亂들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精神的 混亂의 와중에서 형성된 理念的 空白에 파고들어 온 外來思想의 하나가 마르크스-레닌主義였으며, 그들이 제시하는 유혹적 理想 郷에 휩쓸린 많은 사람들의 동요로 지난 半世紀사이에 아세아 여러곳에 共產全體主義體制가 들어섰습니다.

21世紀를 내다보고 社會의 制度的, 物質的 발전의 기틀을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韓中日 등 아세아국가의 국민들은 우리의 未來設計의 지침이 될 理念體系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傳統價值와 外來理念들 속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가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과 관련하여 우리는 共產理念的 극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自由民主主義의 土着化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는 韓中日 專門學者들을 모아 共產主義理念的 受容과 變容과정을 심층분석하고 있습니다. 外來思想으로서의 共產主義理念이 既存價值體系와 社會體制的 맥락속에서 받아들여지던 과정을 分析함으로써 이 理念을 克服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는 생각에서입니다.

東亞研究所에서는 내년부터 약 2년간 이번會議과 같은 구조속에서 自由民主主義 受容과정을 분석하는 회의를 主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가지 重要的 다른 理念的 受容을 점검하려 합니다. 이렇게 “西洋의 受容”을 背景으로서 “西洋의 克服”, “西洋의 超越”을 期하는 기초를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에 여러분들의 격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會議主題에 대해서는 大會議長이신 李光麟教授께서 말씀이 제실 것이므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會議준비에 心血을 기울여주신 會議準備委員會의 李甲允위원장이하 여러분들의 勞苦를 致賀하고 싶습니다.

좋은 회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